

중국, 희토류 개발 4500억원 투입

하이브리드자동차용 수요 기대 ... 1만3500톤으로 생산 확대 계획

중국은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항공기 제조에 필수적인 희귀금속 희토류(稀土類)개발에 적극 나섰다.

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, Wukuang은 앞으로 5년 이내에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20억위안(4500억원)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Wukuang는 2009년 1단계 사업으로 3억-4억위안을 투입해 중소 채광·가공 공장들을 통합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.

2009년에는 희토류를 8500톤 가공·생산하고 앞으로 3-5년 이내에 생산량을 세계 최대인 1만3500톤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.

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세계수요의 58%인 5200만톤에 이르고 Jianxi의 Ganzhou 지역이 최대 산지로 알려져 있다.

Ganzhou의 희토류 채광·가공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2008년 10월 이후 희토류 가격이 톤당 8만위안에서 5만위안으로 40% 가량 떨어져 대부분이 생산을 중단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3/03>